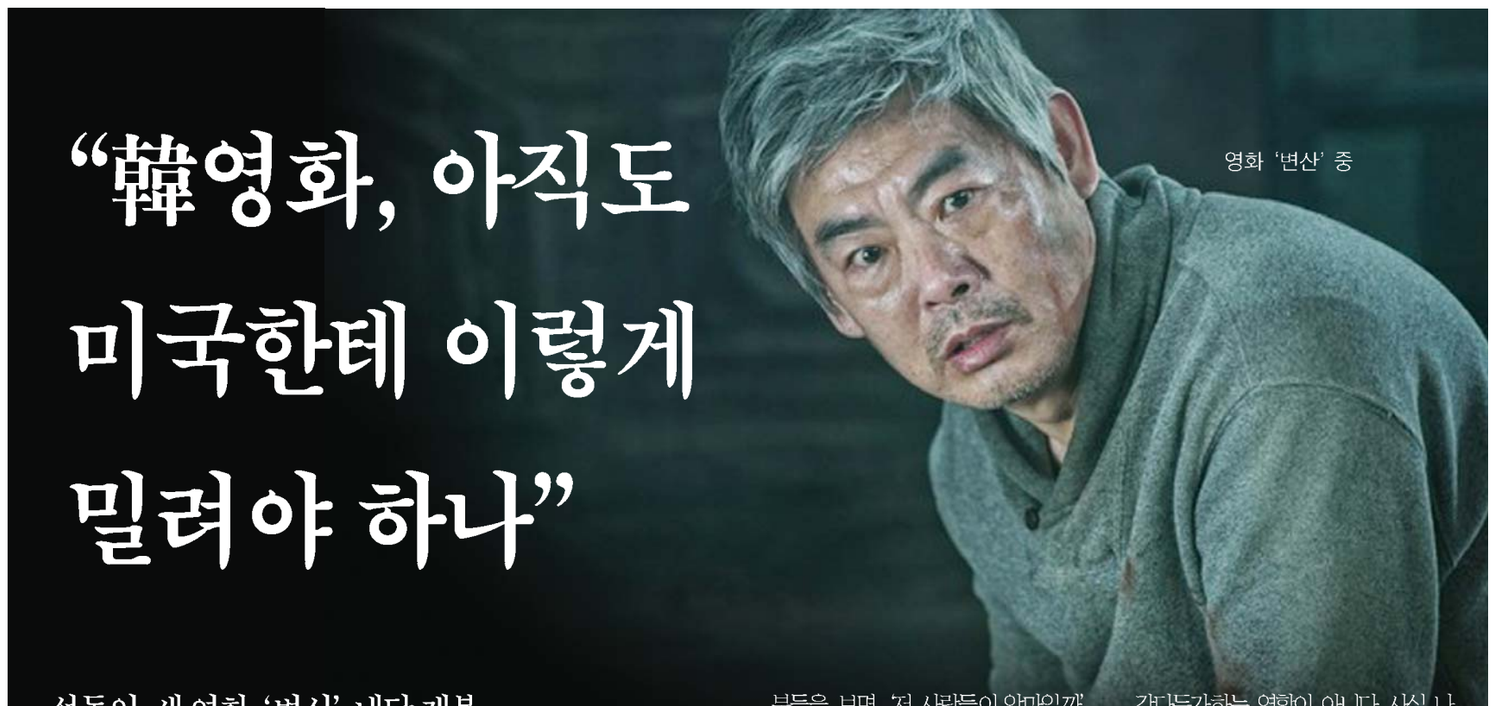
"韓영화, 아직도 미국한테 이렇게 밀려야 하나"


영화 '변산' 중

성동일, 새 영화 '변신' 내달 개봉

"악마가 가족의 모습으로 변하는 점이 다른 영화와의 차이점이다. 하우스 호러 포인트에 한국적 일상을 더했다. 보통 악마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는 보기 드문 스릴러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했다. 그걸로 인해서 더 크게 다가오는 현실적 공포를 강조했다.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경계에서 오는 미스터리가 있다. 이 영화는 진짜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변신'을 연출한 김홍선(43) 감독은 16일 제작발표회에서 다른 호러 영화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영화 '변신'의 포인트는 현실성이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호러다. 사실 호러하면 귀신이나 악마가 나옴으로써 판타지적 요소가 들어간다. '변신'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실에 발을 디딘 호러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성동일(52)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오컬트 영화는 목적없이 악마가 나타나거나, (목적이) 있어도 단순한 목적으로 등장한다. 감독님이 말한대로 가장 한국적인 공포 스릴러를 만들었다. 배우들의 눈물 연기도 많고, 관객들도 짠해서 같이 울 수 있는 장면이 꽤 나온다. 가족들간의 사랑, 소중함을 담은 영화다. 어떤 공포 스릴러와도 완전히 다른 가족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가족 안으로 숨어들며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그린다. 악마가 자유자재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설정이다. 성동일과 함께 배성우(47), 장영남(46), 김혜준(24), 조이현(20), 김강훈(10)이 출연했다. '기술자들', '공모자들', '반드시 잡는다'의 김홍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미성년', '킹덤'에서 활약한 김혜준은 첫째 '선우' 역을 맡았다. 악마가 가족으로 변할 때의 특징에 대해 "악마가 가족으로 변신을 했을 때 바로 악마성을 드러내면 영화 이야기도 재미없어지고 지루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변신'은 악마가 악마성을 드러내기보다 숨어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엄마 '명주' 역의 장영남은 '악마가 왜 무섭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요즘 사건 사고를 보면 끔찍한 일이 정말 많지 않나. 그런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악마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요즘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다"고 했다.

김 감독은 "나는 악마가 있다고 믿는다. 다만 '영화를 찍다 보니 사람이 악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강력범죄라든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자신이 한 나쁜 짓, 무서운 짓을 숨기기 위해 악마란 존재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생각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극중 삼촌 '중수'이자 구마사제로 등장하는 배성우는 앞서 구마사제를 연기한 강동원, 박서준과의 차별점에 대해 "특별히 나만의 구마사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대본 자체에 있는 역할이 명확했다. 구마사제의 역할도 했지만, 가족의 역할도 함께 해야 했다. 가장 중점을 둔 건 '죄책감'과 '사명감'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강동원, 박서준과 비교했을 때는) 실제(구마사제)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다. '더 킹' 찍을 때도 감독님이 가장 검사같다는 말씀을 해줬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배성우가 주연으로 전면에 나선 첫 작품이다. 배성우는 "사실은 부담감이 더 왔다. 다행히도 혼자서 영화를 끌어간다든가하는 역할이 아니다. 사실 나도 삼촌이라 가족이다. 같이 호흡을 맞춰가고 극을 전체적으로 모든 배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촬영하면서 하나의 역할을 맡아 톱니바퀴로 잘 굴러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자세를 낮췄다.

성동일은 "('변신'의 구마사제는) 남의 일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다. 140도 정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180도는 아니다. '또 구마사제 얘기야?'라고 하기에는 많이 다르다"고 자부했다.

김 감독은 가장 인상깊은 장면을 꼽아달라는 요청에 "성동일 선배의 연기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연기는 변신한 연기가 아니었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예고편에도 선배님이 변신한 장면이 나온다. 가장 인상 깊고 벅찼던 연기는 선배님의 변신한 연기가 아니었다"면서도, 스포일러가 되기에 더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마지막 인사 요청에 성동일은 "한국영화가 너무 밀린다. 이렇게 미국한테 아직도 밀려야 하나. 홍보 잘 해달라. 한국 영화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감독을 포함한 출연진과 함께 큰절을 했다. 한국판 신 오컬트 호러 무비 '변신'은 8월 개봉 예정이다.

박나래 "부산 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개막 예고"

9월1일부터 열흘간

개그우먼 박나래(34)가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개막식을 진행한다. 8월 23일 오후 7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개막하는 제7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부코페)의 사회자가 됐다.

박나래는 MBC TV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등 다양한 예능물에서 활약 중이다. 그 동안 부코페에 디제잉쇼, 나래바 공연, 홍보단 등으로 참여했다. 이번에는 MC로서 밝은 에너지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축전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

박나래는 "부코페에 대한 애정이 많이 생겼다"면서 "MC를 맡게 돼 영광이다. 개막식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부코페'는 9월1일까지 열흘간 부산 센텀시티 공연장 등에서 계속된다.

뉴시스

이다희, 걸그룹 전장 한가운데로… '퀸덤' MC

한 날 한 시 컴백 6팀 대전

탤런트 이다희(34)가 엠넷 '퀸덤'을 진행한다.

엠넷은 15일 '퀸덤'의 티저영상을 공개하며 "걸그룹 컴백 대전을 이끌 MC로 이다희가 확정됐다. 다음달 말 방송예정"이라고 밝혔다.

'퀸덤'은 한 날 한 시에 새 싱글을 발매할 K팝 걸그룹 6팀의 컴백 대전를 그린다. 아티스트들이 서로 배려하며 컴백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온 음악시장의 불문율을 깨고, 명실상부 '원톱'이 되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정면승부를 벌인다.

이다희는 '퀸덤'의 설계자이자 걸그룹의 조력자로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평소 걸그룹의 팬인데 좋은 기회로 MC를 맡게 돼 기쁘다"며 "연기 활동 외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쥐띠
분주하기만 할 뿐 소득이 없다. 신상에 우환이 염려되니 각별히 조심하라. 남에게 친절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나 가족도 소홀히 하지 마라. 2, 7, 11월생 여색에 주의할 것. 의욕을 가지고 박력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행운을 잡는 길이다.

▶소띠
순서를 알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 들쥐 잡으려다 집으로 쥐를 들여 기르는 격. 1, 4, 10월생 금전운은 중단. 애정의 갈등도 심각하다. 어떠한 액운이 닥친다 해도 재치있는 순발력으로 처리해야겠다. 고통은 잠시 다.

▶범띠
예정에 없는 출타는 금물이다. 꽃피는 봄에 과일을 따려고 나무 밑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경솔함을 비웃는 자가 있다. 쥐, 범, 닭띠 믿지 말라. 1, 2, 8월생 이정표 잃은 방황이 심각한 상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라.

▶토끼띠
어수선한 주변을 정리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물도 기름도 아니니 되는 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찾아라. 힘과 땀으로 생수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날. 4, 11, 12월생 큰 행운이 다가오니 준비하고 포착하라.

▶용띠
친구를 만나 술도 생기는 좋은 날. 인기도 상승하니 기분이 마냥 상승곡선을 탄다. 그렇다고 우쭐해하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한 노력이 필요. 애정에는 틈 생길 우려. 양보와 이해심으로 메워라. 1, 7, 11월생과의 거래는 조심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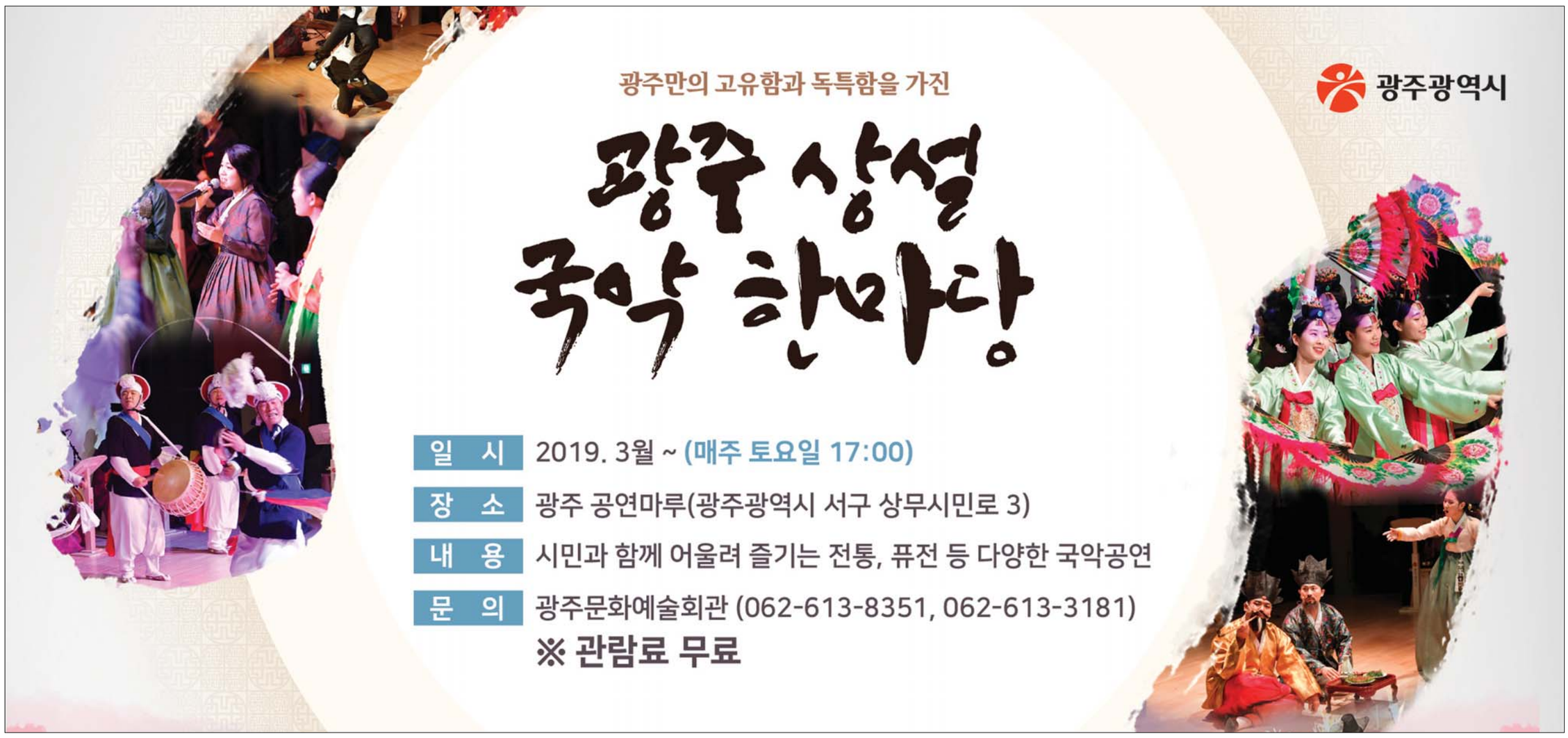
▶뱀띠
가진 자가 강자이다. 자존심은 금물이다. 상대를 알고 대하라. 사업가는 대성할 기회가 왔다. 희망이 보인다. 둘이서는 참 좋으나 주변사람들로 인해 사랑하는 사이에 금이 간다. 8, 9, 12월생 타인 때문에 답답한 심정.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

▶말띠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해야겠다. 용기만으로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있겠으니 재검토가 필요한 때. 자유롭게 임하라. 부모와 눈치작전 벌이는 시기다. 오늘 음주는 삼가. 1, 3, 5월생 사랑에 울고 신병으로 고통 있다.

▶양띠
자신의 처지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어떠한 일을 해도 결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새로 시작할 일은 잠시 보류함이 좋을 듯. 금전 약속은 꼭 지켜라. 허영심으로 뜬구름 잡겠다는 자만심은 버리는 것이 좋을 듯.

▶원숭이띠
연인과 데이트라도 즐김이 어떨까. 혹 청혼이 있을 수 있으니 자존심은 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냄이 좋을 듯. 여자는 핑크빛이나 보라색으로 단장하면 길하다. 2, 5, 11월생은 갈등. 이기적이고 불순한 태도가 일을 망치는 격.

▶닭띠
자녀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있겠다. 심한 꾸중은 자제함이 좋다. 지나친 참견도 삼가라. 오늘만이라도 시간을 내 대화로 푸는 것이 미래의 걱정을 막는 길. 의류업자는 더 투자하라.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용기도 필요한 것.

▶개띠
홀로서기가 힘이 들고 한층 더 뛰어야 할 날. 인덕 없어 한숨 쉬게 된다. 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겠다. 지나친 사업 투자에는 책임만 부과된다. 동업은 힘이 없다. 소화불량 조심. 형제자매와 부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삼가라.

▶돼지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성공의 길이 보인다. 지성이면 감천 하늘도 복을 내릴 것이다. 내 앞길은 나만이 개척한다. 채무관계 철저히. 남녀관계 조심할 것. 1, 2, 8월생 건강유지에 신경 써라. 쓸데없이 투기에 손대면 후회. 애정 근심. 쓸데없이 투기에 손대면 후회 애정에 근심.